

# 영어대화에서 삽입발언의 어용적기능

최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자면 그들속에서 외국어회화를 널리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는 회화가 기본입니다.》

대화의 전형적인 형식은 하나의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즉 Q-A이다.

대화에서 시작은 흔히 하나의 질문으로써 어떤 언어행위에 대한 반응을 주는것이다. 그런데 일상적인 영어대화에서 사람들은 흔히 그러한 전형적인 대화형식을 어기고 대화 사이에 발언을 첨가시킴으로써 《질문1- 질문2- 대답2- 대답1》의 형식을 띠는데 바로 이 가운데의 린접쌍발언 《질문2- 대답2》를 삽입발언이라고 부른다.

일상영어회화에서는 질문과 대답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보장되고있다.

례: A: Q1: May I have a bottle of Mich?

B: Q2: Are you twenty one?

A: A2: No.

B: A1: No.

(A: 질문1: 미취술 한병 살수 있습니까?

B: 질문2: 나이가 스물한살입니까?

A: 대답2: 아니요.

B: 대답1:그러면 안됩니다.)

삽입발언구조는 대화흐름에 따라 확대될수 있다. 이처럼 확대된 삽입발언구조를 다회교차삽입발언이라고 한다.

다회교차삽입발언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Q1 (Q2 (Q3 (Q4 - A4) A3) A2) A1)로 된다.

례: A: Q1: Are you coming tonight? (오늘밤에 오겠나?)

B: Q2: Can I bring a guest? (손님 한명 데리고가도 되겠나?)

A: Q3: Male or female? (남자요, 여자요?)

B: Q4: What difference does that make? (그런 구별은 왜 하오?)

A: A4: An issue of balance. (균형문제때문에 그러오.)

B: A3: Female. (여자요.)

A: A2: Sure you can. (중소. 데려올수 있소.)

B: A1: I'll be there. (그럼 거기에 가겠소.)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A와 B가 원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출발점으로 삼을수 있는 일부 공통적인 배경지식을 함께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삽입발언이 있게 된다.

삽입발언의 주제는 원래의 린접쌍발언(기본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그러나 때때로 대화자들은 하나의 주제로부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주제로 쉽게 넘어갔다가 다시 본래의 주제에로 돌아오기도 한다. 다른 주제에로 넘어가는 삽입발언을 《부차적삽입발언이 들어간 련속체》라고 한다.

례: A: I'm dying to know - where's my watch by the way?

B: What?

A: What Gillian's aerobics sessions are like HA HA HA HA.

B: What aerobics sessions? It's here.

A: Gillian does aerobics sessions every evening LEADS them. Thanks. Can you imagine?

(A: 야, 이거 막 죽겠구나. 도대체 내 시계는 어디 있다는거야?

B: 뭐라구?

A: 켈리안선생의 호기성체육수업이 정말 재미있어, 정말이야.

B: 무슨 호기성체육수업말이야? 자, 자네 시계가 여기에 있구만.

A: 켈리안선생이 매일 저녁 호기성체육수업을 한다네. 그 선생이 기본이 되어 배워줘. 시계를 찾아주어 고맙네. 자네 한번 생각해보라구.)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화자들은 기본화제거리인 호기성체육과 보조적화제거리인 손목시계의 분실에 대하여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대화자들은 현재 진행중의 주제와 다른 소리가 나오면 대체로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는 정황을 잘 알게 되면 대화내용과 의미가 명백히 안겨온다.

삽입발언은 영어대화에서 여러가지 어용적기능을 수행한다.

삽입발언은 첫째로, 영어대화에서 대답문의 조건이나 전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례: A: Q1: Tell me darling; what did daddy say when he fell off the ladder?

(애야, 나에게 말해보렴. 아버지가 사다다리에서 떨어질 때 뭐라고 하던?)

B: Q2: Will I miss out the nasty words, mum?(어머니, 쌍말을 빠뜨리고 할가요?)

A: A2: Of course, dear. (물론, 요 귀염둥이.)

B: A1: Nothing. (아무말도 안했어요.)

우의 실례를 보면 아버지가 사다다리에서 떨어질 때 한 말은 물론 다 쌍말일것이다. Q2에서 아이는 먼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한 쌍말을 그대로 외울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어머니의 승인을 받았지만 그는 쌍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 《Nothing.》이라고밖에 대답할수 없었다.

이 실례에서 삽입발언(Q2-A2)은 대답하는 말 A1의 조건이나 전제로 된다.

삽입발언은 둘째로, 영어대화에서 하나의 지연과 허락의 과정으로 되면서 그 결과는 대답하는 말의 근거로 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실에서 학생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전에 생각을 굴려보고 말하게 되는 삽입발언을 실례로 들수 있다.

례: A: Collins. What is mood, a kind of grammatical categories? (Q1)

B: Let me see --- (지연)

A: Yes? (허락)

B: It's a form of a verb expressing fact, command, question, wish or conditionality.

(A1)

상점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사면서 값을 치를 때에도 같은 경우를 찾아볼수 있다.

례: A: How much all together? (Q1)

B: I'll just work that out for you. (지연)

A: Thanks. (허락)

B: Twenty-three dollars. (A1)

삽입발언은 셋째로, 영어대화에서 의혹과 그것에 대한 해석과정으로 될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삽입발언의 이러한 기능은 대답하는 사람이 질문한 사람의 말자체의 뜻이나 함의를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자주 나타난다.

례:① A: Is the clerk there? (Q1)

B: Do you want him? (의혹)

A: Yes. (해석)

B: (To the clerk) The lady wants you at the window. (A1)

② A: Where's the taxi? (Q1)

B: What taxi? (의혹)

A: We're waiting for a taxi. (해석)

B: Well, I don't know. I'm from the newsagent. (A1)

삽입발언은 넷째로, 대화과정에 나타나는 오해, 잘못듣기, 정상적인 회화흐름의 중단과 같은 손상된 회화를 바로잡는 수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화과정에 나타난 손상된 회화를 바로잡기 위하여 삽입발언이 끼워들으로써 교제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인다.

례: (례문에서 대문자로 쓴것은 력점을 주는것을 의미하며 《::》의 표식은 긴 음절을 나타낸다.)

A: What have you got to do this afternoon?

B: Oh I'm going to repair the child bar.

A: What do you mean CHILD bar?

B: Uh it's er :: metal bar goes across has to be fixed from one side of the car I mean :: from one side of the back seat to the other for the BABY seat to go on.

A: AH:::

A: 오늘 오후에 뭘 하려고 합니까?

B: 음, 애기가름대를 수리하려고 하오.

A: 아니, 애기가름대라니요?

B: 오, 그건 말이요 ... 가로질러서 설치한 금속막대기인데, 승용차안의 한쪽에 고정 시킨것ियो. 말하자면 ... 승용차뒤좌석의 한쪽을 막아서 애기가 그 자리에 앉아 차를 타고 가게끔 되어있는것이지.

A: 아하 ...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손상된 회화를 바로잡는 수정을 자체로 하고있다. 이와 같이 손상된 회화를 바로잡는 수정은 자체로 하는 수정과 상대방이 하는 수정의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는데 자체로 하는 수정이 더 자주 쓰인다.

손상된 회화를 바로잡는 삽입발언을 측면삽입발언이라고도 한다.

례: A: Hey, the first time they stopped me from selling cigarettes was this morning.

B: From selling cigarettes?

A: From buying cigarettes.

우의 실례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상대방의 깨우침을 받고 자체로 하는 수정이다.

례: A: But you know single beds are awfully thin to sleep on.

B: What?

A1: Single beds      [ They are  
B1:                              You mean narrow?

A2: They're awfully narrow, yeah.

우의 실례에서 B – A1 – B1 – A2은 한묶음의 삽입발언이며 여기에서 B1은 상대방이 하는 수정이고 동시에 single과 narrow 두 단어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어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는 구조격식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회화본위로 외국어교육을 진행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